

# 북스

Books

## 역사와 신화 어우러진 판타지 영웅 대서사시

양구스1·2 오를란두 파에스 필로 지음

2003년 브라질에서 25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대하소설 '양구스 1·2'가 번역·출간됐다. 브라질 작가 오를란두 파에스 필로가 쓴 이 책은 10여명의 역사학자가 참여해 10여년의 작업 과정을 거쳤다.

이번에 한국에서 출간된 것은 1권 '위대한 신화의 탄생'과 2권 '타오르는 붉은 십자가' 등 두 권. 2009년 까지 총 7권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저자는 1978년에 소설을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4세기 스코틀랜드인들의 역사에서 2020년 미래의 공간까지 시공을 넘나드는 작가의 상상력이 한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1권은 바이킹의 후예가 약에 맞서는 영웅으로 거듭나면서 벌이는 모험과 승리, 좌절 등을 다루고 있다. 서기 865년 바이킹의 지도자 시울프와 그의 아들 양구스 맥라클란은 앵글로 땅을 향해 정벌을 나선다. 아버지의 죽음을 겪은 양구스는 수도사 네니우스를 만나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뒤 북방 바이킹의 약탈에 맞선다.

양구스는 북방 바이킹에 맞서 싸웠던 웨식스 왕국 앨프레드 왕과의 만남, 차가운 별관과 얼어붙은 바다 위의 전투 등을 거치면서 진정한 전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신의 이름으로 전사의 임무를 받는다. 소설



유럽 정벌 전쟁·십자군 원정...

바이킹 맥라클란 가문의 모험

은 실제 역사에서 8~10세기까지 바이킹들이 벌였던 잉글랜드 침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권에 등장했던 양구스 1세의 무용담을 전해들은 맥라클란 가문의 전사들은 2권에서 신의 깃발 아래 십자군 원정에 나선다. 서기 1095년 그들은 자신의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사명을 알게 되고, 1차 십자군 원정길에 오른다. 신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살육의 현장에서 선 맥라클란은 정의의 실현을 고민한다.

신의 손자 양구스는 할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비잔틴 제국으로 향한다. 양구스는 그 곳에서 불의의 습격을 받아 동료를 잃고 부상을 당한다. 이 때 안티오

크로 향하는 성전기사단을 만나게 되고, 잃어버렸던 가문의 성검, '가우스 세리드윈'을 찾는다. 그리고 다시 기사단과 합류해 할아버지에 이어 2차 십자군 원정에 나선다.

11~13세기까지 서유럽의 그리스도교도들이 성지 팔레스티나와 예루살렘을 이슬람으로부터 빼앗기 위해 벌인 대원정이 십자군 전쟁이다.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1095년에 1차 십자군을 소집해 4년 후인 1099년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세력을 결집한 이슬람에 의해 1145년 2차 십자군이 결성된다. 역사 속에서 십자군 원정은 8차례 이상 계속됐고, 성전으로 불린 이 전쟁은 살육과 약탈로 얼룩졌다.

작품이 단순한 전쟁 소설이 아닌 것은 주인공들의 캐릭터에 비춰지는 선과 악에 대한 고려, 인간이 겪는 참혹한 순간에 순수한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 등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영웅이 없는 시대에 절대 의지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감동이 묻어난다.

〈웅진지식하우스·각 권 1만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역도산 일대기 그린 만화책 10권 출간



'바람의 파이터', '조선 여항사 다모' 등의 원작 만화가 방학기 씨가 쓰고 그린 '역도산 승부사'의 노래(전 10권)가 출간됐다.

경기도 두메 산골의 민중에서 태어나 1950년 전후 일본 열도를 누빈 재일동포 프로레슬러 역도산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연재했던 '스포츠투서울'의 시리즈물을 모아 엮은 것이다.

방화기 특유의 강한 필치의 그림과 시대 전반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전설적 영웅으로 대접받았던 역도산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지음과도음·각 권 8천원〉

이것이 인간인가 프리모 레비 지음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민간인 학살, 나치의 유대인 살육, 광주 만행까지 인류의 암상에 생체계를 남긴 역사적 사건들은 속한다.

산자들 보다 죽은 자들이 많은 잔혹한 역사의 현장에는 항상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들은 '증언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태동시켰다. 움베르토 에코와 함께 이탈리아 문학을 대표하는 프리모 레비(1919~1987·사진)는 현대 증언문학의 대부다.

프리모 레비가 쓴 '이것이 인간인가'는 반 파시스트 운동에 가담했다가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보낸 10개월 동안의 '처참한 삶'을 증언한 책이다.

지난 1945년 출간된 이 책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 박트리 프랑클의 '밤과 안개', 엘리 비젤의 '밤'과 함께 나치즘을 고발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수인번호 174517이라는 이름을 얻은 레비가 겪은



## 아우슈비츠 수용 10개월 분노와 절망의 울부짖음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은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손톱을 이빨로 깎고, 굶주림에 지친 나머지 입천장과 목구멍을 떼이면서까지 뜨거운 죽을 정신없이 들이켜야 했다. 그에게 수용소 생활은 폭력과 구타, 굶주림 등이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처럼 반복되는 지옥이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처참한 상황을 흑백 사진처럼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으로써 독자를 전율로 이끈다.

그러나 레비는 잔인한 고통을 늘어놓지는 않는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인간성이 파괴되는 현장이다.

"쿤이 큰소리로 상체를 거칠게 흔들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 자신이 선택되지 않은 것을 신께 감사

하고 있다. 쿤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옆 침대 의 그리스인, 스무살 먹은 베포가 내일 모레 가스실로 가게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특히 그는 현장에서 느낀 '악의 평범성'을 강조한다. 비인간적인 명령을 부지런히 수행한 사람들을 포함한 추종자들이 타고난 고문기술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들이었다는 점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장이었던 히스, 베트남 학살을 감행한 미군들이 그들이다.

레비는 "우리가 아우슈비츠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고통을 인간의 차원으로 보편화해 우리의 역사적 상처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들베개·1만2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80일 간의 세계여행=윌 베른의 소설 '80일 간의 세계일주'에서 필리어스 포크가 세계 일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상상 속에서 세계를 여행했기 때문이다. 세계 80곳의 아름답고 웅장한 풍경을 립직한 컬러 사진과 설명을 통해 만난다. 〈좋은생각·4만9천원〉

▲차의 20,000가지 비밀=허브 차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허브 백과사전. 차의 기원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허브 차의 역사와 인류에 기여했던 여러 허브를 'A-Z가이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허브의 전설, 역사 속 사용예, 효능, 사용법 등이 담겨 있으며 114가지 허브를 다루고 있다. 〈산지니·1만3천원〉



▲나의 명화읽기=화가이기도 한 일본인 소설가 이카세가와 겐페이가 쓴 명화 해설서. 우리에게 친숙한 고흐, 세잔, 고갱, 마티스, 다빈치 등 르네상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화가들의 명화 15점에 대한 감상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다. 〈놀와·1만원〉



▲낯선 사람들=소설가 김영현이 '폭설' 이후 4년 만에 출간한 장편소설. 조용한 소음에 사는 전직 마을금고 이사장이 살해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큰 아들은 존속살해범으로 체포되고, 작은 아들이 사건을 파헤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실천문학사·9천800원〉

▲임에 익은 우리 익은말=구비문학 연구에 평생을 바친 80대 후반의 노학자가 쓴 토종 말과 사자이다. 김준영 전북대 국문학과 명예교수는 속담 뿐 아니라 "어화동동 내 사랑"과 같이 빗대어 쓴 말도 '익은 말'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익은 말 358개에 대한 친절하고 설명이 곁들여졌다. 〈학고재·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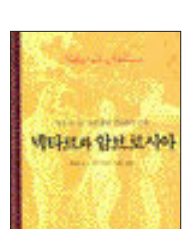


▲돌의 내력=일본 소설가 오쿠이즈미 히카루의 1993년 아쿠타가와 상 수상작.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번역·출간돼 호평을 받았다. 주인공이 불두하는 암석과 광물의 세계가 사이코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농밀한 심리와 더불어 잘 묘사돼 있다. 〈문학동네·9천800원〉



▲이숙영의 맛있는 대화법=KBS에 이어 SBS 라디오에서 20년째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톡톡 튀는 스타DJ' 이숙영씨가 대화의 노하우를 책으로 엮었다. 저자는 잘 듣고, 좋은 목소리로 여유있게 대화를 이끌라고 말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1천원〉

▲나비지뢰=시집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를 쓴 이정하씨의 첫 장편소설. 제목 '나비지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사 용된 대인지뢰 PFM-1의 다른 이름이다. '지뢰'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랑을 품고 살아온 준영과 화려한 삶을 꿈꾸는 미나, 이들을 지켜보는 수진 등 셋의 사랑이야기. 〈랜덤하우스·9천800원〉



▲네텔라와 암브로시아=독일의 민족학 교수 클라우스 E. 필러가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인류학적 기원'을 찾아 나섰다. 저자는 사냥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때부터 페스트푸드의 재앙이 시작될 때까지 인간의 음식문화에 새겨진 의의와 규칙을 날카로운 인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인터쿠스·1만2천원〉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소비자들이 대거 찾는 최상품! **전기히터의 왕품 플러이드히터**

소비자들이 가장 믿고 싶어 하는 최상품! **사계절용과 원거리 입세 난방까지**

**무등산업** **무등산업**

**Cell Banking**

생명은.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한다면

장수, 젊음, 질병 예방, 치료에 사용하는 1대 1 맞춤 치료의 시작입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 **3771-3475**